

밝고 건강한 아기를 위한
감성 태교동화

여름날 초록처럼 너를 사랑해

글 김혜정 | 그림 김혜림
추천 주정경(송파고은빛산부인과 원장)



|| 한빛라이프



우리가 너의 걱정 인형이 되어 줄게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에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몰려와.
걱정이란 녀석은 참 끈질기거든. 하지만 이제 걱정은 그만~.
엄마와 함께 걱정을 물리쳐 보자.

걱정 인형

“폴은 올해 여덟 살이 되었어. 초등학교 입학은 곧 앞두고 있지. 이번 여름이 지나면 집 근처 학교를 다니게 될 거야.

“폴, 수업 시간에 떠들면 선생님한테 혼나.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

“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친구를 못 사귀면 말한 마디 못하고 지내야 할지도 몰라.”

“폴, 학교 숙제는 잊지 않고 꼭꼭 해야 해.”

폴의 누나와 형, 그리고 부모님은 폴을 위해 학교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었지. 그런데 폴은 그런 이야기를 듣자 걱정이 되었어.

‘수업 시간에 오줌이 마려우면 어찌지?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 선생님이 나를 미워할지도 몰라. 하지만 참지 못하고 오줌을 싸 버리면? 나는 친구들에게 오줌싸개라고 놀림을 받을 거야.’

‘짜깁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 유치원 때 토미처럼
주먹질을 잘하는 아이면 어떻게 하지? 나를 때릴지도 몰라.’

학교에 갈 생각을 하면 폴은 가슴이 답답해졌어. 여러 가지
걱정들이 폴의 머릿속을 뭉게구름처럼 떠다녔고, 폴을 아주
힘들게 했지. 폴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냐면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좋아하던 초코 케이크도 먹지 않을 정도였어.

어느 날 폴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니 엄마가 폴을 불렀어.
엄마 손에는 사람 모양의 알록달록한 작은 인형들이 다섯 개
놓여 있었어.

“엄마, 이게 뭐예요?”

“폴, 지난번에 엄마가 아파서 외할머니가 오셨잖아.
외할머니가 엄마 대신 집안일 해 주시던 거 기억나니?”



“그럼요. 외할머니가 만들어 준 옥수수 수프는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는 폴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 탄소리를 했어. 폴은 인형이 뭔지 궁금해서 다시 물었어.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가 인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어.

“폴, 이건 너의 걱정을 대신해 줄 걱정 인형이란다. 이 인형들이 네 걱정을 대신해 줄 거야. 자, 이건 네 숙제 걱정, 이건 짝꿍 걱정, 이건 선생님 걱정, 이건 오줌 걱정, 이건 별별 걱정을 대신해 줄 거야. 너를 괴롭히는 일이 생기면 이 인형들한테 모두 다 말하면 돼.”

엄마가 걱정 인형들을 하나씩 폴의 손바닥 위에 옮겨 주면서 말했어.

“네 고민을 털어놓은 다음 인형을 베개 밑에 넣고 자면 돼. 당장 오늘밤에 한번 해볼래?”

폴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걱정인형을 베개 밑에 두고 잠을 청했어.

그러자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그날 밤, 폴은 아주 폭 잠이 들었어. 꿈속까지 쫓아와 괴롭히던 나쁜 생각들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어. 잠든 폴의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폴은 일어나자마자 초코 케이크를 먹겠다며 나섰어.

폴의 걱정을 걱정 인형들이 모두 가져가 버렸거든.



네가 엄마, 아빠에게 왔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기쁜 만큼 걱정이 되었어.

네가 건강하게 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을 하는 대신 스스로를 믿기로 했어.

걱정만큼 건강에 해로운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아가야, 너도 아무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 주렴.



널 사랑해서 모든 걸 줄 거야

자꾸만 보고 싶은 건 바로 사랑에 빠졌다는 뜻이래.
그리고 자꾸만 뭘 주고 싶은 마음도 바로 사랑이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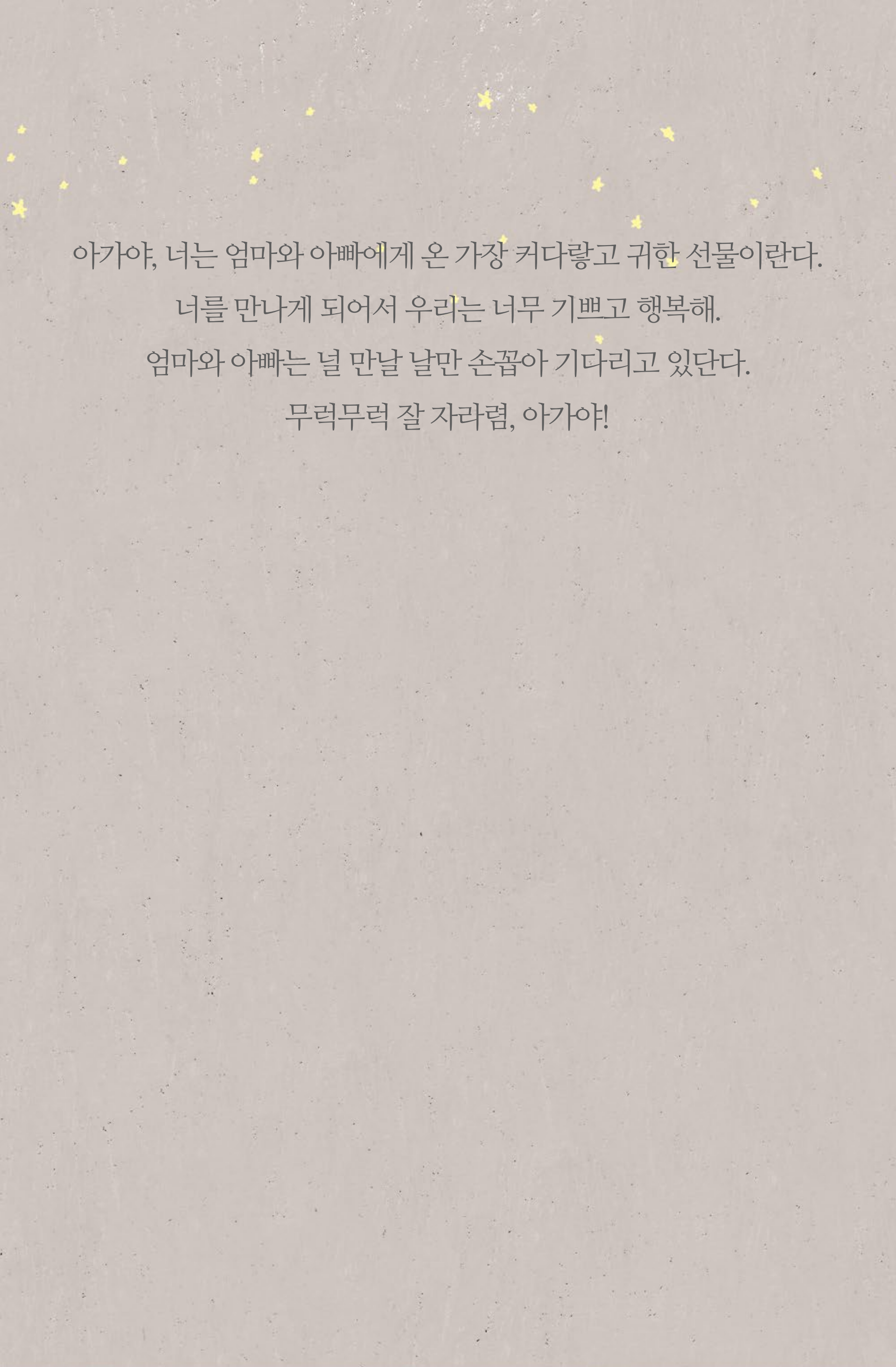
선물

- 기욤 아폴리네르

그대가 원하신다면
그대에게 드릴게요,
환하게 밝은 아침과
그대가 좋아하는 반짝이는 내 머리카락과
푸르게 빛나는 내 눈을.

만일 그대가 원하신다면
그대에게 드릴게요,
따듯한 햇살 가득한 곳에서
눈을 뜰 때 들리는 소리와
분수에서 흐르는 맑은 물소리를.

마침내 찾아오는 저녁에
내 마음으로 물든 저 노을과
내 작은 손과 당신 곁에 두고 싶은 내 마음을
기꺼이 그대에게 드릴게요.



아가야, 너는 엄마와 아빠에게 온 가장 커다랗고 귀한 선물이란다.

너를 만나게 되어서 우리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

엄마와 아빠는 널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다.

무럭무럭 잘 자라렴, 아가야!

소중한 아기에게 들려주는 감성 태교동화

